

동경대학교 인문사회계 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 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보고

최종보고서 제출일 : 2013년 1월 29일

파견생의 기본정보

성 명 : 이 선희
소 속 :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한국조선언어사회전문분야 박사과정 2년
파견형태 : 2012년도 여름 개인파견

연구과제명 :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 전시되었던 조선간본에 대한 연구
-프랑스 파리의 언어문화대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파견지에서의 활동

(1) 파견지 기본정보

국 명 : 프랑스
도 시 명 : 파리
연구기관명 : 언어문화대학도서관
(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이하 BULAC)
접촉한 주요 연구자명 : 로랑 끼스피 (Laurent QUISEFIT : BULAC)
김 대열 (KIM Daeyeol : INALCO)
노 미숙 (NO Mi-Sug : Collège de France)

(2) 파견기간

출발일 : 2012년 10월 04일
귀국일 : 2012년 12월 27일
체재기간 : 총 85일

주요 연구성과

(1) 연구계획의 개요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조선서지 보유관』(1901년)에 의하면,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전시되었던 조선간본의 대부분이 구 동양어학교에 기증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었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만국 박람회에 전시되었던 책은 조선 왕실에서 선별한 귀중한 것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교류 연구에 있어서도, 그 역사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리스 꾸랑의 『조선서지 보유관』(1901년)을 중심으로, 당시 전시되었던 조선간본 중에서 유일하게 제목이 알려져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과, 2012년 3월 필자의 현지조사로 새롭게 떠오른 『개수첩해신어』의 서지사항을 참고로, BULAC 소장

조선간본의 서지를 조사해 보면,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 전시되었던 조선간본에 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실제로 달성된 성과

당초에는 『개수첩해신어』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덧칠 작업이 전시를 위해서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다른 간본들을 조사해 본 바, 덧칠이나 수정은 일부 역학서에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을 뿐이고, 다른 책에서는 그러한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장정에서 몇 가지 패턴이 보여지므로, 파리만국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본문의 덧칠이나 수정부분이 아니라, 장정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ULAC 소장본에 대해서는 향후 서지사항과 기증번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일본과 한국에 있는 이본들과 대조해 봄으로써, 그 특징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박사논문집필에 필요한 역학서를 중심으로 38종 117권의 서지를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특히, 개인연구자에게 사진촬영이 허가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향후 일본소장본과 한국소장본과의 대조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둘째, 기증번호와 서지사항이 적혀있는 카드목록을 촬영했다. 현재 BULAC 소장의 조선간본은 600종이 넘지만, 전체목록이 없고 OPAC에도 실려 있지 않다. 열람신청 시에 필요한 서지사항은, 현대의 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카드목록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카드목록에는 있지만 소재불명의 책도 있으며, 목록번호가 없는 것도 있어서, 총 책수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기증번호와 서지사항이 적혀 있는 카드목록을 검토하고 재정리 작업을 함으로써, 목록작성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소장경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플레주 드 프랑스 소장의 구 모리스 꾸랑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12장의 인쇄물을 확인하고, 복사와 사진촬영을 한 것이다. 이 인쇄물에는 모리스 꾸랑의 『조선 서지』에 삽입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앞으로 이 12장의 인쇄물과 『조선 서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3) 향후 연구전망

이번에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집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학서를 중심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전체의 일할에도 못 미치는 적은 양이지만, 간행년도로 보면 조선의 거의 전시대를 커버하는 것이다. 앞으로 BULAC 소장본을 포함하여, 당시 모리스 꾸랑과 플랑 드 뽀랑시에 의해 프랑스에 전해진 조선간본의 서지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 연구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BULAC의 카드목록과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BULAC 소장본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그 후, 왜학서를 중심으로 BULAC 소장본과 일본 소장본, 한국 소장본의 대조 연구를 실시하고, 다른 역학서로 대조연구를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조선의 인쇄 문화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소장 경위도 밝혀지리라 기대한다.